

“너 거기 있었구나!”
위대한 자연이 눈뜨는 자리마다
오늘 이 순간이 감사해지는 색이 채워집니다.

공평한 햇살과 바람, 비를 머금으며
봄날을 깨우는 생명들처럼,
저마다 나다움을 찾아가는 봄 안에서,
언제고 쓰여지길 바라며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내 안의 그 무엇들에게 안부를 건네봅니다.



Special Theme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바이오 메디컬 도시를 꿈꾸다



유물에 담긴 시간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보물 제720-2호, 청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당나라의 종밀(宗密)이 저술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를 송나라의 혜정(慧定)이 다시 풀이한 책입니다. 고려 우왕 4년(1378)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했으며, 상·하 2권의 책으로 된 목판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으로, 우리나라 불교와 인쇄문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시대를 잇고 지켜온 깨달음의 글과 훈

질박한 종이 위로 선사(禪師)들의 가르침이 흐릅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슬한 변민과 노력들이 반듯이 누워 있는 글자마다 어려 있습니다. 금강석과 같은 지혜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 더 품 넓은 사람이고자 했던 우리네 선조들. 이를 널리 알리려 했던 그 속 깊은 마음을 조금조금 소리 내어 마주합니다.

WOW청대

Window of the World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4 Spring Vol. 67

청주대학교 소식지의 제호인 <WOW 청대>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OW 청대 2014년 봄호(통권 67-1호)
발행일 2014년 4월 30일
발행인 김윤배 | 편집인 윤기택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 취재 이은형

Contents

02 Letter from President

총장 인사말

Special Theme

06 Special Opinion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메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08 Academic Union

오송 바이오 캠퍼스 시대를 여는
바이오메디컬학과

Glocal Report

14 Global Today

중국 학생방문단 전통문화체험
현장 스케치

16 Global Challenge

4주간의 합숙으로 영어의 달인이 되다,
영어기숙캠프

18 Local Together

충북 공공디자인 서포터즈로 활약하는
산업디자인학과

WOW People

22 청인보(淸人譜) 제1장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종렬 동문(신문방송학과 84)

26 청인보(淸人譜) 제2장

40년 관료의 삶,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정순 동문(행정학과 78)

28 청인보(淸人譜) 제3장

태권도라는 운명, 국기원장
정만순 동문(상학과 64)

30 Photo Essay

조금은 느리게 흘러도 좋을
봄날의 서정

WOW Messenger

32 Bravo Your Life

존경과 믿음으로 맺어진 ROTC
삼부자(三父子), 김진홍 동문 가족

34 Beautiful Reunion

사제동행, 인연의 길을 함께 걷는
관광경영학과 박효표·이익수 교수

Issue & News

38 Focus On

청주대, 신입생 입학식 및
예비교육 실시 외

42 News Brief

청주대, 교직원 퇴임식 거행 외

44 People News

교수소식 | 김성태 교수,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논문 발표 외
동문소식 | 경청호 동문, 제27대
청주대학교 총동문회장 선출 외

46 Special Lecture

최창환 장수돌침대 회장
명사초청 특별강좌 외

48 Donation Guide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자 예우 안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봄꽃을 활짝 피워내고 이제 곧 나뭇잎 색이 진해질 나무처럼 청암로를 힘차게 올라오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젊음의 당찬 꿈을 봅니다.

청주대학교 모든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일에 집중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아 정의로우며 사회, 또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도 교육의 본질과 책임을 생각하며 흐트러짐 없이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로 개교 67주년을 맞은 청주대학교는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약 2,7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고, 지난해에는 120억 이상을 증액한 370여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바이오 캠퍼스에는 우리학교의 단독 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청주대학교는 올해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위한 대학 차원의 많은 도전과 노력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평생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우리대학의 책임지도교수제처럼, 모든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깨어있고 앞서 나가는 총장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늘 우리의 자부심인 9만여 동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교에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길 소망해봅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차게 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청대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김윤배



◆ 총장동정

적십자사 성금 전달

지난 3월 18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찾은 김윤배 총장은 성영웅 충북적십자 회장을 만나 우리대학의 특별회비 200만 원과 개인 성금 1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300여만 원의 특별회비를 기탁했고, 김윤배 총장 역시 2006년부터 개인적으로 총 700여만 원에 달하는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측에 기부해 왔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식 개최

김윤배 총장은 지난 3월 27일, 본관 청석홀에서 외국인 유학생 124명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배 총장은 "문화와 품성이 다른 외국에서 공부하는 일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성실하고 진실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대-육사 군사학교류 협약식 참석

김윤배 총장은 지난 4월 18일, 우리대학과 육군사관학교(학교장 소장 고성균)의 상호 유대관계 강화와 교육·연구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교는 군사학 관련 분야의 학술 연구와 정보 교환을 비롯해 교수와 직원, 학생 간의 교류를 실시하게 된다.





Bio Medical City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되다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바이오 메디컬 도시를 꿈꾸다

건강과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치를 고민하는 지성의 전당, 청주대학교가
생명을 향한 존엄과 경이로움을 학문적 가치로 계승하는
충북 지역의 첫 번째 대학이 되겠습니다.

SPECIAL THEME

06 · Special Opinion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메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08 · Academic Union

산학협력과 학문간의 융합으로
바이오 캠퍼스 시대를 여는 바이오메디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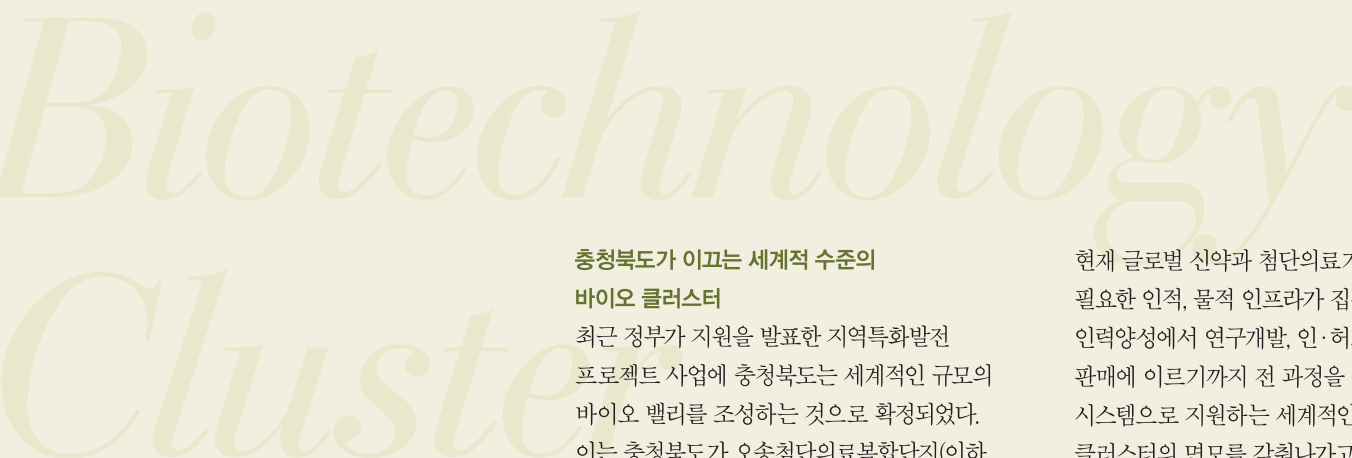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메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도전과 꿈

세계 3대 바이오밸리를 꿈꾸는 충북! 대표적인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 충청북도의 새로운 오늘과 내일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지역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과 지역의 대표 대학들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거 참여하면서 통합청주시는 첨단바이오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충청북도가 이끄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최근 정부가 지원을 발표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규모의 바이오 밸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충청북도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 시대를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시작한 이즈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바이오'는 오래 전부터 충청북도의 '주력 중목'이었다. 제4의 경제혁명으로 손꼽히는 '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은 인류가 당면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핵심 미래산업으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며,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하다.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일원에 자리잡은 오송첨복단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앞서 나아가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충청북도의 야심 찬 프로젝트다.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첨단의료로 특화된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는 의료 분야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기업체와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이 한 곳에 모여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집적되어 인력양성에서 연구개발, 인·허가, 제조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윈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면모를 갖추나가고 있다. 6개의 국책기관이 자리한 보건의료행정타운, 4대 바이오 메디컬 시설과 4대 핵심연구지원시설, 18개 민간 연구개발기관이 입주한 첨단의료복합단지, 6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한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으로 구성된 오송첨복단지에는 아파트 4천여 세대를 비롯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공공시설도 함께 들어서 주거형 첨단복합단지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곁에 두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은 오송첨복단지의 거침없는 발전을 보장한다.



국책기관부터 바이오 캠퍼스까지 새로운 경쟁력 가동

오송첨복단지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지원시설과 연구인력이 이미 대거 입주해 있고, 또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개 국책기관이 이주를 완료한 상태고, 이어 4대 핵심연구지원시설인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로 완성해나가기 위한 필수 연구지원시설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국립의과학지식센터를 건립했으며, 2015년에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인체자원은행 전용 건물로 100만 명 분 이상의 인체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실과 100년 이상 자원 보관이 가능한 초저온 냉동고 등을 갖추고 있어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연구자 등에게 적시에 분양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준공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시설 외관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보건의과학 분야의 논문, 보고서 등 전문학술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연구자에게 최신 연구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가 준공되면 줄기세포의 자원 및 정보 분양 등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연구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벤처연구소에 28개의 벤처연구기관이 입주를 신청해 항암백신업체, 화장품 및 의약품업체, 광학기계제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오송이 보유한 바이오 분야 최상의 연구환경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국내 우수 벤처기업뿐 아니라 독일 줄기세포재생의학 국제공동연구소, 미국 바이오 약품 벤처기업 등 외국 업체들의 입주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청주대학교를 비롯한 충청북도 내 3개 대학이 참여하는 바이오 캠퍼스도 구축되어 있어 산학연 공동 연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첨단의료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핵심연구시설 전체 조감도

'바이오 밸리 충북'의 중심에서 열리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올 가을에 열릴 예정인 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는 오송첨복단지를 본격적으로 세계에 선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223개 국내의 기업과 700여 명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The Secret of Life, Beautiful Future)'이라는 주제 아래 바이오 관련 노벨상 수상자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내외 학술회의도 함께 개최된다. 충청북도 내 전채로 보면 오송을 중심으로 제천의 한방 바이오, 옥천의 의료기기, 괴산의 유기농식품, 진천·음성의 화장품·화학 등 '바이오 밸리 충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엑스포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이자, 충청북도의 바이오 산업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 중심에 서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㉓

산학협력과 학문간의 융합으로 오송 바이오 캠퍼스 시대를 여는 청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조성된 산학융합지구 '오송 바이오 캠퍼스 시대'를 여는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 충청북도 소재의 대학들 가운데, 우리대학을 비롯해 단 세 곳만이 입주하게 되는 바이오 캠퍼스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해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가장 먼저 진출하는 학과이자 산학협력 친화형 학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메디컬학과와 새로운 도전을 들여다본다.

Osong Bio Campus



A. 바이오 캠퍼스 B. 기업연구관 C. 벤처연구센터 D. 커뮤니케이션동 E. 게스트하우스

바이오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감도

오송 바이오 캠퍼스로의 이전을 눈앞에 둔 바이오메디컬학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들어가는 핵심은 바로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 교육에 있다. 이를 위해 오송첨복단지는 산학융합지구 QWL(Quality of Working Life)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단지 내에 입주한 모든 이들이 일하고,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가운데 양질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산학융합지구에는 기업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함께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바이오 캠퍼스다. 충청북도에서 이곳 바이오 캠퍼스에 입성하는 대학은 단 세 곳뿐이다.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와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충북도립대학교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캠퍼스를 이전,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인 바이오 캠퍼스 시대를 열게 된다.

오송첨복단지 내에 산학협력 중심 캠퍼스가 구축되는 것이다. 바이오 캠퍼스는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융합을 위한 R&D 등을 추진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 오송에서 진행될 강의와 연구활동은 훨씬 더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 대학과 기업체 간 다양한 연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바이오 캠퍼스는 오송첨복단지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진기지이자 젊은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가 입주하게 될 바이오 캠퍼스 (가장 오른쪽 건물에 입주 예정)



A.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B. 오송산학융합지구
 C.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서고 있는 산학융합지구의 지리적 위치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산학협력 친화형 학과로 새롭게 거듭나다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는 바이오 캠퍼스 이전은 오송첨복단지에 '청주대학교'가 당당히 진출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충북 지역의 수많은 대학들이 단지 내에 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입주를 확정 짓고, 충북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 위에 단독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으니 우리대학의 강력한 경쟁력 하나가 더 추가된 셈이다. 정부는 바이오 캠퍼스 구축에 5년간 총 40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대학,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건축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이번 캠퍼스 구축사업에 총 19억여 원을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캠퍼스는 오는 10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바이오메디컬학과가 오송 바이오 캠퍼스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산학협력 친화형 학과로 거듭났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전학, 세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산업미생물학, 줄기세포생물학 등 현대 생명공학의 제 분야를 연구하며 충북 지역을 비롯한 국내 곳곳에 실력 있는 바이오 인재를 배출해온 저력이 드디어 제 빛을 발할 시점이 온 것이다. 지난 2013년 학과명을 유전공학과에서 바이오메디컬학과로 변경한 것도 바이오 캠퍼스 시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바이오 산업의 첨병을 양성하다

본격적인 바이오 캠퍼스 시대를 앞두고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는 현재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큰 틀로 하여 근로자 평생학습, 현장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과 단독으로 혹은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별 연구와 비즈니스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턴십도 진행한다. 또, 산학협력센터를 설치해 산업체와의 긴밀한 유대를 도모하게 된다. 그 예로,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원료의약품 회사인 파마코스텍과 1차년도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이며, 2013년 1학기에 교과목 'GMP 실무 이해'라는 커리큘럼을 신설해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융합 R&D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는데, 건국생활건강, 엘컴사이언스 등의 기업체와 1차년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1차년도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바이오메디컬학과는 중요한 역할이자 기능은 학부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도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집중해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앞으로 바이오메디컬학과는 다양한 산학연계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도와주는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다른 대학들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④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프로젝트 Lab** 유비쿼터스 바이오 정보기술, 생체정보처리연구, 헬스케어 기술경영, 품질관리 분석, 신약 발굴, 노화유전자 발굴
- 비즈니스 Lab** 헬스케어, 바이오 R&D 인턴십(현장실습) 바이오센서 개발, 의료기기 개발, 신약 개발, 글로벌 헬스케어 MBA, 바이오 기초 전문인력양성, 기능성 식품 개발
- 산업체 전달체** 1:1 산업체 전담교수 배정, 산학협력센터 설치 및 활성화



지난 3월 6일에 열린 바이오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립공사 기공식

Mini Interview

“바이오메디컬학과는 청주대학교의 신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강정훈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바이오 캠퍼스 이전 추진사업단장

학과 전체가 바이오 캠퍼스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충북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오송첨복단지는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만큼 학과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인데 감회가 어떠신지요. 학생들도, 교수들도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송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바이오산업단지로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한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그동안 대학본부와 학과의 많은 관계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지금 오송에 우리대학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학과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2.5배 정도 넓은 규모입니다. 학교에서도 2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KTX 오송역이 가까워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통학도 가능합니다.

바이오 캠퍼스의 입지 조건이 꽤 매력적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과 인력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과가 입주하게 되는 바이오 캠퍼스 뒤로 6대 국책기관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기업연구관, 문화센터, 벤처연구센터가 함께 들어서고 있고요. 정부에서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 이유가 연구와 교육, 기술개발, 재교육의 순환고리를 잘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정말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3~4년 내로 미국의 NIH(국립보건원)와 같은 연구단지로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연구단지 안에 우리의 캠퍼스를 가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자부심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여건 안에서 지적인 자극을 받으며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 캠퍼스에서 청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는 어떤 분야에 주력할 계획인지요. 우선 연구보다는 학부 교육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현장에 곧바로 투입해도 제 역할을 다해내는 인력을 키우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현재 바이오 식품과 화장품 관련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학과만의 경쟁력입니다. 의약 분야와 관련해서는 제약공정에 필요한 여러 과정, 즉 GMP 라든지 HACCP과 같은 품질관리와 분석 등과 관련된 교과목을 보강해 학생들이 의약개발과 생산라인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청주대학교 내 다른 학과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바이오 캠퍼스로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는지요. 우리대학은 일단 바이오메디컬학과가 단독으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작년에 신설된 제약공학과와 함께 바이오 캠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대학 전문연구소와 대학원도 설립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학과만의 새로운 도전이 모쪼록 청주대학교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좋은 기운을 전하길 바랍니다.

**생명의 땅 충북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오늘도 진화한다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

TIP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 청주대학교 역시 오송 지역을 첨단 의료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바이오메디컬학과와 바이오 캠퍼스 이전뿐만 아니라 8개 학과로 구성된 보건의료대학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를 꿈꾸는 충북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책임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 첨단 실습을 병행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을 소개한다.



간호학과

1기 졸업자 전원이 우수 의료기관에 100% 취업하는 등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간호학과는 인간존중의 간호윤리관을 바탕으로, 전문 간호지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숙련하여 간호현장-교육-연구과정을 통합하는 교과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치위생학과

치위생학과 역시 최고 수준의 학습환경과 체계적인 치위생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1기 졸업자 전원이 치과위생사 국가 시험에 합격하여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현장에서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기 위해 긴밀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방사선학과

방사선학과는 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암 치료에 대한 방사선종양 분야와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 검사를 수행하는 핵의학기술과학 분야 등에서 활약할 방사선사를 양성하고 있다. 의료 분야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물리치료학과

질병, 사고 또는 선천적인 질환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와 재활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치료사는 사회발전과 고령화에 따라 그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물리치료 기초 과목들과 더불어 임상 기초 및 임상 물리치료를 교육한다.

작업치료학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 혹은 정신 기능 손상이 발생되어 사회적인 적응력이 감소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료를 시행하고,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는 학문이다. 기본적인 의과학 지식과 전문적인 치료기술 등을 습득한다.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는 기초 의·과학과 생명과학이 결합된 융합학문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경과, 예후 등을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판독하는 응용학문이다. 2013년 새롭게 신설되어 대학 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

의료경영학과

2010년, 충북 도내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신설된 의료경영학과는 최근 의료기관들이 전략적으로 조직의 규모를 점차 대형화, 종합화하거나 진료 분야를 전문화, 특화하는 경향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나 민간보험사, 정부 산하기관에 필요한 의료경영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과에서는 운동으로 인한 전문선수, 아마추어 선수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외과적 치료와 재활뿐만 아니라 유아, 청소년의 발육발달에 관한 운동 프로그램, 성장기 질병 치료를 위한 운동 처방,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운동 처방 등을 두루 배우게 된다.

세계 속의 청주, 청대 안의 세계

드넓은 세계를 향한 '글로벌'의 가치와 지역과의 소통과 교류를 바탕으로 세계를 꿈꾸는 '글로벌'이 공존하는 청주대학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삶'의 법칙을 배웁니다.

GLOCAL REPORT

14 · Global Today

중국 학생방문단
전통문화체험 현장 스케치



16 · Global Challenge

4주간의 합숙으로
영어의 달인이 되다, 영어기숙캠프



18 · Local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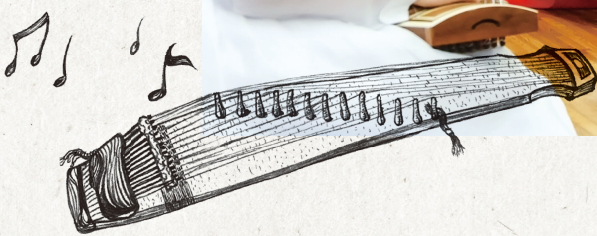
충북 지역 구석구석 디자인으로
희망의 기운을 싣 틈우다



중국 학생방문단
전통문화체험 현장 스케치

설날연휴를 한 주 앞둔 지난 1월 24일, 청주향교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중국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중국 광둥해양대학교와 담강사범대학 재학생들로, 매년 두 차례씩 우리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학생 초청캠프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귀한 손님들이었다.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친숙해진 14명의 중국 학생들을 따라가 보았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의 해법,
전통문화체험에서
답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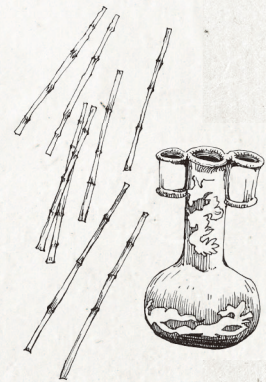
“어렸을 때부터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좀처럼 배울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가야금도 배우고, 다른 것들도 직접 해보니 정말 재미있네요.”
최영(광동해양대학 신문방송학과)

낯설지만 친숙한 한국의 전통문화에 매료되다
1월 24일 오전 9시, 청주향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우리대학의 초청으로 중국 광둥해양대학교와 담강사범대학에서 온 14명의 학생들은 아직은 제법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에서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중국에도 우리의 설날과 비슷한 '춘절'이라는 명절이 있어 마냥 낯설지는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설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리는 일만큼은 중국 학생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풍습이라고 한다. 고운 색동 저고리를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공손하게 앉은 자세로 세배를 올리는 학생들의 모습은 조금 낯설고 서툴러 보였지만 정겨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호감은 아주 작은 체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한복을 입고 절하는 법을 배웠는데, 한국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번 현장체험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샤오메이저(담강사범대학 음악과)



글로벌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다
이날의 일정은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복 예절을 비롯해 직접 부채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현악기인 거문고를 연주하며 낯선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은 조금씩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민속놀이 체험 시간에는 윷놀이, 투호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을 직접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널 위에서 떨어지기 일쑤고, 향아리 안에 살을 던져 정확하게 넣어야 하는 투호놀이가 역시 학생들에게만만치 않은 놀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승부욕과 긴장감이 더해져 흥미진진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해온 우리대학은 대학과 대학 간의 문화교류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우호관계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행사를 개최해왔다. 신수도권 명문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대학과 중국의 문화교류는 이제, 글로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며 양국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



“투호와 제기차기는 중국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정말 놀랐어요. TV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어 기뻐요.”
우하오원(광동해양대학 국제무역학과)

어학교육원 주최
영어기숙캠프 참가 후기

4주간의 합숙으로 영어의 달인이 되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순간

윤윤미 국어국문학과 10학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영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어쩌면 가장 큰 고민일 수 있는 영어공부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 있었다. 지난 1월 2일부터 29일까지 우리대학 어학교육원에서 진행된 4주간의 동계 영어기숙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 2009년부터 시작해 매년 방학이면 열리는 영어기숙캠프만의 실력 향상 노하우는 무엇인지 캠프 참가자들에게 직접 들어본다.

영어기숙캠프를 처음 알게 된 건 1학년 때였다. 당시 부모님께서 내가 영어캠프에 참가하길 바라셨으나 정작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학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둘째,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년간의 휴학기간 동안 인턴사원직을 경험한 이후부터였다. 6개월 가량 인턴으로 일하며 느낀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건 영어의 중요성이었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재직 중이었는데, 서로 대화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한마디 말할 건네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퇴사 이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어야만 했다. 학원에서는 원어민과 대화할 기회도 거의 없었고, 수강인원도 너무 많았다. 이 때문에 회화 학원을 4개월이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실력 향상을 이루지 못했다. 또, 회화와 토익 공부를 모두 병행하려다 보니 금전적인 부담이 컸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질 때쯤 우리학교 영어기숙캠프를 떠올렸고, 커리큘럼 또한 상당히 좋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곧바로 캠프에 등록해 4주간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오전에 진행되는 토익 수업의 경우, 크게 리딩(Reading)과 리스닝(Listening)으로 진행되었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주로 영어회화 수업이 이어졌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내 경우 라이팅(Writing) 실력을 키우고 싶어 회화반 로난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영어일기 검토를 부탁했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셨다. 캠프 기간 동안에 나는 복습과 예습에 할애할 시간이 적어 마지막 주에 치르는 토익 시험 당일 많은 걱정을 했다. 한 달 동안 나의 실력은 정말 향상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뜻하지 않게 200점 향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 참가자들 또한 적게는 50점, 높게는 300점까지 점수가 올랐다. 꾸준한 단어암기와 문제풀이, 원어민 교수님들과의 소통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었던 것이다. 캠프 이후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다. 이전에는 외국인과 단 한마디도 나누기 힘들만큼 두려움이 컸는데, 캠프에서 매일 진행되는 회화수업이 그런 나의 두려움을 말끔히 없애주었다. 언제든지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는 영어회화가 즐거운 놀이 같다. 캠프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더 이상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됐다. 힘들고 지루할 것만 같았던 영어공부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준 영어기숙캠프의 경험은 내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준 고마운 시간이었다.



학업의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준 영어캠프

안성연 전자공학과 13학번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온 것에 비해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 많았던 나.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영어 관련 과목은 만족할 수 없는 점수를 받았고, 토익 시험을 봐도 400점을 밑돌고 있었다. 학교시험이나 토익에서 나오는 문제나 별다른 점이 없었고, 충분히 문제의 유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낮았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날 때쯤 영어회화 교수님이 동계 영어기숙캠프를 소개해 주셨고, 효과적인 영어공부 방법도 배울 겸, 다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도 확인해볼 겸 해서 캠프에 합류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기숙사에 머물며 매일 아침 등교해 토익과 회화 공부, 자율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이었다. 토익 수업은 문법, 단어만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아닌,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회화 수업은 원어민 교수의 리드 하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영어로 토론을 하거나 교수님께서 준비해오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사물이나 행동을 영어로 설명하는 등 영어와의 친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나는 게임 형식의 수업이 가장 좋았는데, 모든 대화를 영어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은커녕 모든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 캠프 참가자들끼리 함께 공부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단계를 밟아나가다 보니,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드디어 캠프의 대미를 장식하는 모의토익 시험! 캠프 시작 전 350점 내외이던 내 점수는 무려 300점이 올라 660점이 되었다. 아직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영어공부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던 내게 이번 캠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전까지는 문법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 무조건 단어만 많이 외우면 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캠프 후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게끔 하고, 어려운 문제나 독해 등은 빨리 풀기보다는 정확하게 푸는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 또한 달라졌다. 아무리 공부해도 좀처럼 영어실력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취직 시 필요한 커트라인만 넘기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적이 오른 후부터는 다음 시험에서 700점을 넘기고, 졸업 전까지 900점대 점수를 받아야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지난 겨울, 나와 함께 영어기숙캠프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캠프에 참가할 사람들 역시 캠프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현재보다 나은 내일의 목표와 꿈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㉞



The Language Education Center
English Boarding Camp

충북 공공디자인 서포터즈로 활약하는
산업디자인학과

충북 지역 구석구석 디자인으로 희망의 기운을 싹 틔우다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자! 충청북도가 관내 대학생들과 손을 잡고 공공디자인 활동을 벌인다.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20명이 공공디자인 서포터즈가 되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6년 연속 수상하며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과연 충북 지역에 어떤 변화를 일구어낼지,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이 리디자인(Re-Design)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주의 수암골과 통영의 동피랑 마을이다.



지난 3월 14일 충청북도청 소회의실에서는 우리대학과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함께 참여하는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충북의 새로운 기운 돌우는 공공디자인 서포터즈의 탄생

최근, 공공디자인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이 리디자인(Re-Design)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을의 특색을 담은 벽화,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새롭게 태어난 공공시설물이 그 지역에 새 기운을 불어넣으며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청주의 수암골과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는 모두 지역이 공공디자인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빛어낸 결과들이다. 충청북도는 공공디자인의 이러한 긍정의 기운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대학생들의 젊은 상상력과 열정을 불러모으기로 했다. 지난 3월, 도 차원에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를 발족하고 1년 동안 낙후 지역과 대학생들이 소통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갈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 20명은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함께 이번 사업의 첫 번째 서포터즈로 활약하게 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낙후된 충북의 남북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정체성을 살린 특색 있는 공간과 시설물 디자인을 창출하고 홍보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이처럼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사업은 대학생들에게는 재능기부를 통해 자긍심을 얻고, 지역은 지역특화 아이템을 발굴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주요 사업 유형

- 문화·재생공간 테마(문화, 예술)공간, 문화골목, 옥상텃밭 조성 등
- 특화거리 범죄 없는 거리, 돌레길, 탐방로, 담장 허물기, 벽면 개선 등
- 시설물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등
- 색채디자인 노후 공동주택 외벽 색채 개선 등
- 지역이미지 비개발, 지역 특화 공공디자인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세계 랭킹 23위를 자랑하는 산디과의 숨결과 아이디어를 발산하다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오는 11월까지 개인의 디자인적 상상력이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자신의 재능기부로 삶의 공간이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 하는 과정도 지켜보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충북 옥천 등과 같은 외곽지역을 탐사하며 직접 공공디자인 소재를 찾게 된다. 벤치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물과 벽화작업 등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이라는 과목의 일환으로,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개인 포트폴리오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4학년들은 졸업작품과 연계할 수도 있다. 2008년부터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레드닷, IDEA, iF)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6년 연속 공모전에서 본상을 수상하고 있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2013년 독일 iF(International Forum) 디자인 기준 글로벌 랭킹 23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이들의 빛나는 열정과 재능이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발현되고 꽃을 피우게 될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충북 지역 도민들에게 매우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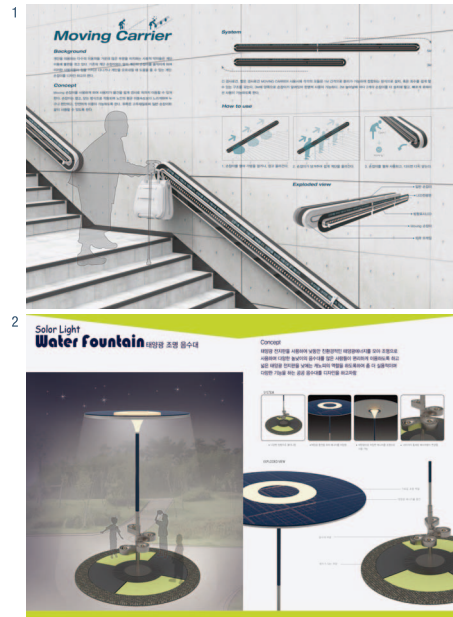
**제2회 충북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된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의 저력**

TIP

최근 충청북도는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의 실현과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풍명월의 정체성을 살리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창출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는 도내 역사와 문화, 인문자원 등을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공공디자인 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매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2회 충북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충북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아름다운 나의 도시 충북'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전국에서 접수된 총 142점 가운데 대상 1점을 비롯,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특선 19점이 최종 선정되었다. 수상작 가운데 청주대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무려 네 팀이나 선정되어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문지수 동문(당시 4학년)의 '맨홀 래더(Manhole Ladder)'는 안전 표지판과 결합한 맨홀 사다리를 제안하여 기능성과 활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함현경 동문의 'Moving Carrier'는 계단 손잡이를 움직이게 하여 무거운 짐을 매달아 이동시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편리하도록 디자인한 세심함이 돋보였다. 우수상에 선정된 이은정 학생의 'Bus-stop Locker'도, 장려상에 선정된 이혜민, 송정욱 학생의 '태양광조명 음수대'도 모두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다운 남다른 아이디어로 승부했다. 충청북도는 도내 공공디자인 사업계획에 이번 수상작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거리에서 이들의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



1. 최우수상, 함현경 'Moving Carrier'
2. 장려상, 이혜민·송정욱 '태양광조명 음수대'



**안전표지판과 맨홀 사다리를
하나로 잇다**

안전성과 실용성에서
단연 돋보인 대상작,
맨홀 래더 Manhole Ladder

문지수 동문(산업디자인학과 졸업, 조예디자인 디자인팀)

맨홀은 노면에서 지하로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맨홀 아래로 내려가려면 맨홀 통로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맨홀 내부관리가 소홀하고 낙후되어 부식되거나 더러워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공사 때 주변 영역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통행의 불편함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다니며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콘을 설치하지 않아도 공사 중임을 알릴 수 있는 안전 표지판과 결합한 맨홀용 사다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청인.보(淸人譜)
청대인의 삶과 철학을
기록하다

걸어온 삶으로,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이 건넨 이야기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WOW PEOPLE

22 · 청인보 제1장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종렬 동문



26 · 청인보 제2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정순 동문



28 · 청인보 제3장

태권도라는 운명, 국기원장
정만순 동문



바로잡습니다 | 지난 호 'WOW People' 인터뷰 중 '청인보 제1장' 차천수 동문의 직함을 '효성건설 부사장'이 아닌 '효성건설 PG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생태의 숨결, 사진으로 건져 올리다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종렬 동문 신문방송학과 84학번

다큐멘터리. 이 한 마디에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있는지 이종렬 동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 새들을 '그들'이라 부르며 그들의 희로애락을 사진에 담는 이종렬 동문. 자신이 곧 새가 되어 새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생태를 이해하고 끊임 없이 공부하며, 선불리 다가서지 않고 기다리는 사진작가의 길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선불리 다가서지 않고 기다리다. 숨결을 느끼다

“민물가마우지예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팔당으로 사냥하러 갔다가 저녁이면 한강하구 유도라는 섬으로 퇴근해요.” 인터뷰 도중 용산의 작업실 창 밖으로 날아가는 새무리를 보며 설명해준다. 역시, 새 전문 사진작가다. 미련한 사진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종렬 동문은 생태, 특히 새에 빠져 셔터를 누르는 우리나라의 대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다. 최근 그가 펴낸 사진 에세이집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자다>를 펼쳐 들면 새들의 삶 속에서 건져 올린 슬한 이야기들이 감동으로 전해진다. 이 책의 부제처럼 말 그대로 새를 따라 '풍餐露宿(風餐露宿)'했던 지난 20년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들의 숨결을 느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씨근씨근 소리가 들릴 듯한 거리까지 모여드는데, 그때까지는 정신 없이 찍다가 최대한 가까이 다가오면 카메라를 내려놓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평화는 깨지고 새들은 멀리 도망가니까요. 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그들과 내가 한 장소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행복합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낚아챌 만한 거리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만한 순간포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새들과 그렇게까지 가까이 또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안다.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보다는 생태를 잘 아는 사진작가의 길을 선택했던 그이기에 일순간의 아쉬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일까? 그의 사진은 다르다. 보는 이가 새들 속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충분히 가까이 다가선, 혹은 기다린 사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판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내지에서 오랫동안 그의 사진과 원고를 실는 것도 이러한 그의 진심을 알기 때문이다.



흑두루미가 있는 풍경. 2008

이 땅의 모든 강과 습지, 섬에서 만나는 그들, 그들의 삶

대전일보와 세계일보에서 17년간 국회와 인천공항, 국방부, 통일부 출입기자로 활동하던 중 아름다운 자연사진도 신문 지면에 보도하면 즐거운 일이 아니겠느냐며 시작했던 생태 사진이었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도망치듯 떠나 새를 찍기 시작했고, 새들의 생태가 궁금해지면서 공부를 했다. '생태'라고 쓰여 있는 책은 모조리 찾아 읽었고, 관련 세미나도 들었다. 정말 미친 듯 공부하고 보니 자연이 달리 보였다. 비로소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살아도 되겠다는 자신감과 소명이 들어앉았다. “사람 눈에는 가창오리 군무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먼저 빨리 날아가 먹이를 찾느냐의 순간이죠. 치열한 생존경쟁의 레이스인 셈이죠. 생태를 모를 때는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는데, 생태를 알면 그들의 현명함, 그들이 처한 환경이 보입니다. 멧새가 가시덤불을 주로 찾아가 쉬는 건 맹금류를 피하기 위해서이고, 두루미는 얼지 않은 물이 있어야 체온을 유지하며 제대로 설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쉬는 거죠.” 하나의 새에 천착하면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그들의 생태를 기록해오는 건 그만의 철칙이자 특심이다. 천수만과 낙동강, 장항습지, 비무장지대 등 전국의 강과 습지, 섬에 이르기까지 새들이 있는 곳이 곧 그의 일터다.

두루미,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고니... 내 삶의 이유이자 길

이종렬 동문이 그토록 새의 생태에 밀착해 긴 호흡을 하며 사진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힘은 어쩌면 대학시절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대학 1학년 가을, 장학금을 받겠노라며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50만 원을 받아 들고 처음 장만한 니콘 FM2. 그 카메라로 혼자 사진을 배웠고, 학교 암실에서 좌충우돌하며 현상과 인화 기술을 익혔다.

누군가에게 물어 쉽게 배울 수도 있었지만, 태생적으로 호기심이 있으면 파고들어 직접 해결하려는 성품이어서 멀리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돌아가는 과정이 길수록 더 많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무언가를 얻는 데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시절의 이 깨달음은 지금까지 이어져 하나의 신념이 되었다. 한강 이남 대학 가운데 신문방송학과를 처음으로 개설한 모교에 대한 자부심 또한 그를 지탱해주는 또 다른 힘이다. 학생회장을 하면서 만든 소학회 가운데 보도사진연구회가 여전히 활동 중이며, 경향신문, 중부매일, 대전일보, 뉴스스 등에 수많은 사진기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종렬 동문은 1년에 한 번 이 연구회를 찾아 선후배의 정을 다지며 새로운 기운을 얻고 온다. 여전히 그를 청년이게 하는 세 번째 힘인 셈이다.

그간 두루미와 저어새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묶어 낸 이종렬 동문은 조만간 고니와 검은머리물떼새를 따라간 행적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엔 어떤 새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여전히 청년인 그가 또 어떤 새들의 생태 속으로 우리를 안내할지 기대가 된다. 미련하지만 의지를 실현화 시키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는 인터뷰가 끝날 즈음 아껴 두었던 말을 꺼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진실을 담고 알리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작가의 숭고한 꿈이다. ④



비확설강. 2008



저어새의 카리스마. 2008



큰고니가 있는 황혼. 2011

겨우내 3개월을 줄곧 강가에 살면서 고니를 담았고, 2년에 걸쳐 총 8개월의 겨울날을 철원에서 두루미와 함께했다. 검은머리물떼새를 가까이 만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5년 동안 유부도를 30번이나 찾기도 했다. 지금은 14년째 우리나라와 홍콩, 대만, 중국 등지에서 저어새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고 있다. 따뜻하고 편안한 숙소를 마다하고 위장막에서 며칠밤을 지새우는 것은 다반사. 저체온증으로 위기를 넘긴 때도 있었다. “이틀 밤을 기다려 구미해평습지에서 만난 흑두루미떼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잠복해 있는 모래섬 앞에 2천여 마리가 도착해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던 그 장면은 정말 황홀경이었는데... 4대강 공사로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나의 숙명이자 행복인

40년 관료의 삶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정순 동문 행정학과 78학번

누군가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가게 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몇 명이나 흔쾌히 그리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대는 누가 뭐라 해도 실패와 상처로 얼룩지기 마련인 고단한 시절이기에 그렇다. 행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임명직 행정관료로는 도내 최고의 자리인 행정부지사에 취임한 정정순 동문. 그의 성취가 빛나는 만큼 수많은 실패를 끌어안 았을 스무 살의 이야기가 문득 궁금해진다.

“사실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졌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으로서 자식 넷 공부 시키기가 무척 버거웠을 때라 재수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나 혼자 고민이 많았지요. 그러다 그 당시 체신부에 다니던 형님을 찾아 무작정 종주까지 올라갔습니다. 동생이 한 손에는 책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이불 보따리를 들고 서울 가서 공부할 돈을 빌리러 왔으니 형님은 기가 막혔겠지요.”

그렇게 정정순 동문은 종로3가의 공무원학원에서 두 달 동안 독서실 의자 밑에서 웅색한 잠을 자며 불같이 공부했고,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충북 지방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했다. 부모님께 신세 지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마냥 들떴고, 그해 가을 곧바로 우리대학 입학시험을 봤다.

소통과 실무. 지난 3월 19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에 취임한 정정순 동문을 대표하는 두 개의 키워드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40년 가까이 요직을 두루 거처온 그는 비(非) 행정고시 출신으로 고위공무원의 신화를 쓴 인물이기도 하다.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내며 그야말로 인생을 헤쳐 나온 그가 앞으로 충청북도의 전체 살림살이를 어떻게 보살펴나갈지 응원과 기대를 함께 가져본다.

“체력장을 아예 못 봤는데도 학부에서 1등을 했어요. 성적증명서를 떼어 충북도 인사과로 가져가서 학교에 다니며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발령해 주십사 부탁했지요. 어여뻐 봐주셨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은 3월 7일에 청주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날은 대학 입학식 날이자 제 생일이었고, 첫 발령을 받은 날이기도 하니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날을 기억하는 정정순 동문의 얼굴엔 깊은 우물에 퍼지는 물결처럼 웃음이 일렁인다. 인생의 여린 봄을 짓누르던 굴레에서 벗어난 그 날의 행복이 담긴 웃음이다. 놀랍도록 당찬던 청춘의 그 행보를 가능하게 한 힘은 절박함이었다. 내 힘으로 공부해야 한다. 벌어서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절박함. 그는 실패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절박함은 실패에서 재빨리 우회로를 찾는 의지의 원천이 되었다. 행정고시 준비가 여의치 않아 7급 공무원이 되고, 주간에서 야간 대학으로 전과해 주경야독하던 당시의 생활을 그는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일찌감치 현장경험을 쌓은 것이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학술발표대회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 우수상을 받기도 했고, 석사학위 논문도 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서류가방 든 공무원을 동경했고, 공직에서 일해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보답하겠다는 확고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열심히었지요.”

그토록 원하던 공무원이 되어 즐겁게 일해오는 동안 어느새 그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공무원 승진시험 대상자들이 받는 4가지 핵심교육에서 모두 1등을 기록했고, 가장 닦고 싶은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또, 5년간 최장수 경제통상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40년 가까이 충청북도와 중앙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입지전적인 리더가 되었다.

“일은 조직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와 직원 간에 소통이 잘되면 개인은 결코 힘들지 않아요. 소통의 결여, 즉 불통일 때 일도 힘들어 지지요. 서로 소통하고 의지하면 신뢰가 생기고, 격려와 자신감이 있는 조직은 활력이 넘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헤아려 도민을 위한 행정에 빈틈을 보이지 않겠노라는 그에게선 오랜 외길을 걸어온 장인이 그러하듯 묵묵히 내뿜는 올곧은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값진 힘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청주공항과 오송 KTX 분기역 활성화, 통합청주시의 행정적 발전, 농민을 위한 FTA 대책, 복지와 소외계층 돌봄... 행정부지사로서 책임지고 진두지휘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눈앞에 있지만, 정정순 동문에게 이 모든 일은 그저 자신의 숙명이자 행복이었다. ④

태권도라는

운명의 길을 가다

국기원장, 체육교육과 명예교수
정만순 동문 상학과 64학번

다정하고 정이 넘치는 어르신 모습 뒤로 무도인의 강인함이 전해진다.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총 수장이 된 정만순 동문은 오랜 세월 동안 충북 지역 태권도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나라 태권도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1970년대 중남미 국가에 태권도를 전파했던 그 시절의 사명감 그대로, 태권도인의 품격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온 그가 세계 속의 태권도를 위해 또다시 열정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갖가지 나무마다 초록 잎들을 열심히 키워내고 있는 역삼 공원 한가운데. 단정한 자태로 청기와를 이고 있는 국기원이 눈에 들어온다. 국기원(國技院).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이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어하는 태권도의 총 본산이다. '태권도가 곧 삶'인 정만순 동문조차도 국기원은 수십년간 존경의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던 곳이어늘, 이제 그는 국기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태권도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사실,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태권도인으로 살아왔지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태권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현재 206개국에서 약 8천만 명이 태권도로 단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禮)를 중요시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태권도는 예시에종(禮始禮終)의 무예다. 도장에 들어서고 나갈 때, 운동 시작과 끝에, 사범과 수련생 간에 서로 인사로 시작하고 끝을 맺으며 몸 단련과 기술연마보다 정신수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정만순 동문은 입신(立身)의 경지라고 하는 9단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 예(禮)가 온 몸에 배어나는 삶을 살아왔다. 스물 한 살 되던 해, 청주 모충동의 채소밭을 갈아 흙을 고르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작했던 지도자의 길은 1978년 청주대학교로 이어졌고, 그는 곧 우리대학 태권도팀을 창단했다. 체육교육과 교수와 사범대학장을 역임하면서 지금은 탤런트로 활동하는 이동준 동문을 비롯해 여성기, 한재구, 지용석 등 세계선수권과 88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을 배출했다. 1977년에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대표팀을 이끌었던 수장으로, 1992년에는 아시아태권도대회 한국대표팀의 감독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제자를 키워낸 이 '스승의 복'은 젊은 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달렸던 열정이 되돌려준 것이기도 하다.

“제가 복이 많아서 좋은 제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제자부터 세계 곳곳으로 나가 태권도를 알리고 있는 제자까지 훌륭한 제자들이 많아 정말 든든합니다. 믿음직하죠. 그게 제 태권도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엘살바도르에서의 2년은 그의 태권도 인생에서 가장 고단했던, 하지만 단비처럼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던 시절이었다. 인생의 뜨거운 시절에 바다 저편 뜨거운 나라에서 태권도인으로 나아갈 길을 선명히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즘 각국에서 찾아오는 외국인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국제사범으로 일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가 1970년이었는데, 엘살바도르에서 육사생도, 군장교, 경찰, 경호원 등을 2년간 지도했어요. 가족과 떨어져 정말 외롭고 힘든 시기였지만, 중남미에 우리의 태권도를 알린다는 사명감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흔을 넘긴 태권도인에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동안 여러 문제로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서 있는 국기원의 수장이기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만순 동문은 태권도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로 했다.

“예로 소통하면서 안으로부터 단합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야겠지요. 대한민국 태권도인의 저력을 잘 알고, 또 믿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계로 더 당당히 뻗어 나가고 인정받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권도가 되도록 힘쓸 겁니다.”

이제 곧 전북 무주에 지구촌 태권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태권도원'이 개원한다. 전 세계 태권도인과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세계 태권도의 큰 어른 정만순 동문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빛을 발할 것이다. 60년 가까이 품어온 태권도 정신과 품격으로 말이다. ㉞



Andante, Adante...

조금은 느리게 흘러도 좋을
봄날의 서정

봄길을 걷는 이의 걸음 걸음마다 느껴지는 경쾌한 운율 안에서
계절은 무르익고, 젊음은 성장한다.

사뿐히 떨어지는 꽃잎의 속도만큼, 캠퍼스가득 초록이 번지는 시간만큼,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이 지나가는 지금 이 순간이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 천천히 흘러가기를.

청대인의 인연과 추억을 하나로 엮다

뜨거운 청춘의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
소중한 인연의 끈을 오래도록 이어준
지나간 시간과 추억이 가슴 속에 존재하기에,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청대인'입니다.

WOW MESSENGER

32 • Bravo Your Life

존경과 믿음으로 맺어진
ROTC 삼부자(三父子) 가족

34 • Beautiful Reunion

사제동행, 속 깊은 인연의 길을 함께 걷는
관광경영학과 박호표 · 이익수 교수



존경과 믿음으로 맺어진 ROTC 삼부자^{三父子} 가족

부모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 자식에 대한 굳은 믿음. 가족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삼부자(三父子)가 모두 청주대학교 ROTC(제137학군단) 출신인 김진홍 동문 가족에겐 존경과 믿음으로 충만한 소통이 살아있었다. '대한민국 장교'라는 자부심 위에 가족의 끈끈한 정을 더해 삼부자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 김진홍 동문 가족을 만나보았다. (작은아들 김수원 동문은 전남 장성에서 훈련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진홍
일어일문학과 77학번, ROTC 19기
ROTC 충북지구회장

김백원
법학과 03학번, ROTC 45기

김수원
레저스포츠전공 10학번, ROTC 52기

“큰아들 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둘째가 임관할 때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그때 내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셨구나... 세월이 흘러 흘러 제가 큰아들, 작은아들 임관식을 지켜보고 계급장을 달아주니 감회가 새롭고 몽클했습니다.” - 아버지 김진홍

이야기를 시작하던 김진홍 동문은 가장 먼저 어머니를 떠올렸다. 6남매의 막내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만 하며 자랐는데,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그 정이 두 아들에게로 흘러가 강을 이루었나 보다. 아버지와 아들로 맺은 인연 말고도 '동문 가족', 'ROTC 가족'이라는 이름을 더했으니, 김진홍 동문은 좌청룡 우백호가 부럽지 않다. 김진홍 동문은 1981년 ROTC 19기로 임관해 육군 제11사단 소대장으로 복무했고, 큰아들 김백원 동문은 45기로, 작은아들 김수원 동문은 52기로 임관했다. 현재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교육 중인 김수원 동문은 오는 6월이면 강원도 화천에서 2년 4개월의 군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인연이 더 특별해지려고 했는지, 삼부자의 군복무지도 모두 강원도다. 아버지는 흥천에 위치한 11사단, 큰아들은 화천의 27사단, 작은아들은 화천의 7사단이다.

“장교생활을 해보니 살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제 성격에도 맞았고요. 책임감도 익히고, 지휘하고 관리하는 기술도 익히고, 그런 것들이 인생살이에 길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큰아들에게 말했더니 선뜻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이지만 대대장까지 경험하면서 생활을 참 잘했어요. 믿음직하께.” - 아버지 김진홍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ROTC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서른 한 살인데, 심하게 꾸짖거나 회초리 한 번 드신 적이 없으세요.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아버지가 그동안 겪어온 경험들을 말씀해주시곤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둘도 없는 용기와 응원입니다. 동생과 저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을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큰아들 김백원

지난 3월, ROTC 충북지구회장 취임식장에 아버지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큰아들 김백원 동문은 주변 사람들을 헤아리고 챙길 줄 아는 리더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행운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대학시절엔 '부자 ROTC'라는 타이틀이 주는 자부심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고, 그래서 늘 잘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되돌아보니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에 지금껏 성장할 수 있었고, 동생이 ROTC 가족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더 큰 자부심으로 동생을 응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형의 모습이 마냥 좋아 보여 본인 스스로 ROTC의 문을 두드린 작은아들 김수원 동문은 공수부대를 지원했을 정도로 남다른 패기를 지녔다. 동생에게 형은 늘 장교답게 품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주문하고, 아버지는 장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라고 응원의 말을 건넨다.

“제가 가족에게 늘 가훈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라. 대한민국의 장교가 되는 길이 그리 만만치 않았지만, 자신감 하나만큼은 저에게 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사람에게든 삶에게든 여유를 갖고 대할 수 있더군요. 노력 없이 되는 것도 없으니, 아이들에게 원칙과 도를 지켜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 아버지 김진홍

“지금 운영하시는 '천리향'에서 아버지의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시고, 직원들을 격려할 때는 한껏 따듯하시고,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리시는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리더십이죠. 아버지 말씀에 토씨 하나 달지 않고 '충성!' 하는 저희를 보면 아, 우리가 군 가족 맞구나 생각합니다. 하하하.” - 큰아들 김백원

두 아들의 자부심이자 멘토인 아버지, 아버지의 자랑이자 신념인 두 아들. 서로 이끌고 따라가는 이들 가족의 모습은 하나의 멋진 풍경이었다. 그 안에서 존경과 믿음으로 수놓아진 세 명의 웃음이 푸르다. 당당하다. ☺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보내온 작은아들 김수원 동문의 편지

“아버지, 그리고 형! 두 분을 보면서 ROTC 장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장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충북지구회장으로 선출되신 것 정말 자랑스럽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지게 충북지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늘 못한 동생 편이 되어주는 형! 정말 고마워. 지금의 힘든 시간이 재산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형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누구보다 앞선 모습으로 군복무 잘 마칠게. 리더십도 키우고, 병사들과 잘 소통하고, 전투지휘 능력과 품성도 겸비한 소대장 생활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제동행(師弟同行),
그때 그 시절 은사와의 만남

스승과 제자, 속 깊은 인연의 길을 함께 걷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행복을 주는 사람’의 노랫말처럼 스승과 제자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었다.
스승을 닮고 싶었던 제자는 그를 따라 교수가 되었고, 제자들에게 옛 스승의 가르침을 전파한다. 막걸리 같은 제자와 등대였던 스승.
두 사람의 따뜻한 기운이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고 있다.

제자 **이익수** 교수
관광경영학과 86학번



스승 **박호표** 교수
관광경영학과, 경상대학장



이익수 학교에서 매일 교수님을 뵈고 있는데, 이렇게 마주하고 이야기하려니 다시 교수님의 연구생이 된 기분입니다.
박호표 내가 86년에 이곳으로 부임했을 때 자네는 1학년이었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고, 학교도 많이 변해왔지만, 자네를 보면 늘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편하고 좋네. 동료로 같이 학교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익수 교수님이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세요. 경상도 사투리가 약해지신 거 빼고. 그땐 통영에서 막 올라오셔서 사투리가 무척 심하셨잖아요. 군대 다녀오고 교수님 연구생으로 공부하면서 그 사투리가 참 정겨웠습니다. 그래선지 더 가깝게 느껴졌었나 봐요.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 또 학생들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교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박호표 자네도 학교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군. 학생 때 꾸밈없고 수더분한 모습이 꼭 막걸리 같았지. 그러면서 의지도 무척 강했던 걸로 기억해. 결정된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능력도 꽤 좋았지. 친구들도 많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또 잘하고...
이익수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제 결혼식 주례도 부탁드린 거잖아요. 그때 교수님께선 서른여덟 밖에 안되셨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얼마나 난감하셨을까 하고, 하하하. 지금도 그때 교수님의 주례사를 기억합니다. 저에게 막걸리 같은 사나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박호표 맞아. 막걸리 같다고 했어.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지금이야 나이가 들었지만 그땐 주례를 서달라고 하니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 자네 결혼식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줄줄이 제자들 주례를 서고 있지 않나. 그것도 참 인연이긴 해. 막걸리 같다는 건 지금도 같은 생각이야. 학생들 찾아오라 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는 모습이 곁에서 보면 참 뿌듯하거든. 남학생들은 형님처럼 따르다지? 우리대학 취업실장을 할 때에도 학생들 하나하나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 자네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걸 참 잘해. 소통을 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교수이지 않나.



익숙수 교수님께 여러모로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열성적으로 가르치시는 것도 그렇지만 학생들을 정말 아끼셨잖아요. 저희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축구하고 나서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삼미파전, 허주막, 유미통닭, 또 복문 앞에 반짝이집에서 막걸리 참 많이 마셨었는데, 대원식당처럼 몇 백 명 들어가는 식당에도 우르르 몰려가서 밥도 먹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그때 교수님께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가르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판서로 가득 찬 칠판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파워포인트 위주로만 수업하지 않고 한 시간 정도는 판서를 병행하고 있어요. 칠판에 글씨를 써 내려가는 동안 학생들과의 교감이 만들어지는데, 참 좋습니다. 교수님 수업에서 느꼈던 좋은 경험이 지금 제 교수법에 무척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곁에서 배운 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박호표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네. 듣고 보니 자네 도움을 받았던 게 갑자기 생각나. 원고지에 쓰던 논문 기억나니? 자네가 나보다 글씨를 잘 쓰는 바람에 내 논문 손 글씨를 써줬잖아. 내가 박사학위 받을 즈음에 말이야. 내가 완성분을 정리해놓으면 또박또박 원고지에 옮겨 썼었지. 중간에 수정이라도 할라치면 골치 아팠는데...

익숙수 아휴, 그때 손가락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은근 저도 공부가 되더군요. 생각해보니 저와 교수님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군요. 하하하. 그런데 요즘엔 학생들이 교수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의 일화들을 많이 얘기해주곤 합니다. 가르침 받을 때에는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승에게 존경심을 가질 만한 것을 찾아서 배우라고, 스승님의 영혼까지 닮아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박호표 부모들이 학교에 교수를 믿고 자식들을 맡기는 건데, 일단 내가 맡았으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강제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네. 그런 점에서 소신대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기업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 인성과 사회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원하지. 우리 과가 지향하는 것도 그러하고. 서서히 진가가 발휘되는, 뉘뉘이가 된 사람을 키워내자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소신이야.

익숙수 네, 맞습니다.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방향을 제안하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능하기 힘들 때 수많은 이야기로 방향을 잡아주는 누군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 점에서 교수님은 저에게 등대 같은 분이세요. 교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박호표 자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든든한 친구 같아. 어느 땐 동생처럼 가족 같기도 하고, 작년에 학과 30주년 행사를 알아서 진행해줬을 때 얼마나 고맙던지. 우리 학과 동문들이 계속 교류하고 발전해나가는 데 자네가 구심점이 되어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봤네. 그리고 잘해낼 테고. 제자들을 함께 키우면서 서로 힘이 되자고. 나에게도 힘을 주고.

익숙수 교수님께서 우리 관광경영학과의 레전드시잖아요. 제가 힘을 받아야지요. 지금처럼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희에게 자극을 주세요.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

멈추지 않는 도전, 오늘과 내일을 잇는 대학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넘어 세계 속의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청주대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ISSUE & NEWS

38 · Focus On

청주대, 신입생 입학식 및 예비교육 실시 외

42 · News Brief

청주대, 교직원 퇴임식 거행 외

44 · People News

김성태 교수,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논문 발표 외

46 · Special Lecture

최창환 장수돌침대 회장 명사초청 특별강좌 외



Focus. 1

청주대, 신입생 입학식 및 예비교육 실시

2014학년도 청주대학교 신입생 3,146명의 입학식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입학식은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입학생 선서, 총장 환영사, 총동문회장의 학교 배지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입생 대표로 나선 간호학과 박세미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장래 국가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입학생 선서를 하며 청대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김윤배 총장은 환영사에서 "앞으로 4년간 가슴 속에 크고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말하고, 신입생들에게 "청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매진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입학식이 끝난 후 오후 2시 20분부터는 신입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국제 프로그램 및 학생취업지원 안내, 동문 특강과 학생회장단 인사 등의 예비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후에는 각 학과별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공대학, 보건의료대학, 예술대학 등 학과 특성상 실험 및 실습실을 많이 이용하는 학과에서는 신입생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2014학년도 신입생 예비교육 기간 중 숙박과 숙식은 청주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하였으며, 2일차인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모의토의 시험을 끝으로 신입생들은 모든 교육 일정을 마쳤다.



Focus. 2

청주대,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청주대학교는 지난 2월 21일 오후, 청암홀에서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총 2,686명에게 학사 및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증서 수여, 수석 졸업생 표창, 공로상 수여, 식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성중합건 축사사무소(주) 이향재 전무는 '자원순환형 알칼리 자극재를 이용한 고로슬래그 미분말 다량치환 매트 기초용 콘크리트 개발'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최고령 학위 취득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121명도 각각 학위를 수여받았다. 중국 출신의 자오웨이핑 씨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모두 1명의 박사과 22명의 석사, 98명의 학사가 배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전수영 씨가 영예의 수석졸업자로 선정되어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상을 받았고, 이 밖에도 △허윤희(무역학과) △신하나(지적학과) △전혜지(일어일문학과) △김슬기(응용화학과) △이애진(수학교육과) △김푸름(만화애니메이션학과) 씨가 각각 단과대학 수석을 차지하며 총장상을 수상했다.

김윤배 총장은 식사에서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쳐가며,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졸업생들에게 "자신을 성실하게 갈고 닦아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는 당부의 인사를 전했다.



Focus. 3

항공운항학과 실습용 항공기 4대 최종점검 실시

청주대학교는 지난 4월 3일, 김윤배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도입한 비행교육용 항공기 4대에 대한 최종 점검을 청주공항에서 실시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세 번째로 비행교육용 항공기를 도입해 자체 비행교육 준비를 마친 청주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최첨단 비행 시뮬레이터를 통한 사전훈련으로 올해 3학년이 되는 항공운항학과(2012년 개설) 학생들의 비행교육을 적시에 시작할 수 있게 됐다.

4월 중순 첫 비행훈련에 들어간 항공운항학과는 청주공항을 비롯해 국내의 여러 공항을 이용하여 오는 8월 말까지 자가용 조종사 자격과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청주대학교는 오스트리아 다이아몬드사로부터 도입한 첨단 비행교육용 항공기(DA-40NG) 4대에 대한 서울지방항공청의 감항검사를 받고,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이는 2013년 3월, 김윤배 총장이 오스트리아를 직접 방문하여 항공기 구매 계약을 추진한 지 거의 1년만이다. 그동안 항공기 도입을 위한 수입 승인을 받고, 1월 초 청주공항에 항공기를 실은 컨테이너가 도착한 이후에는 항공기 조립과 국토교통부 등록을 차례대로 마쳤다. 이후 감항검사를 거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실습용 항공기인 DA-40NG에 대한 비행교관의 적응훈련을 해왔다. DA-40NG는 최첨단의 디지털 계기 조종석 패널과 항법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훈련기로는 세계 최초로 제트연료를 사용하는 최첨단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연료비 절감을 통해 학생들의 실습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비행실습 교육이 가능하다.



Focus. 4

반도체공학과 등 3개 학과 공학교육 인증 획득

청주대학교가 지난해 12월 대기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반도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등 3개 학과에서 공학교육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실시한 2013년 공학교육인증 평가 결과 청주대학교는 반도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에서 인증 졸업생을 배출해 인증(2014. 03. 01 ~ 2016. 02. 28)을 획득했다. 또한 청주대학교는 토목공학과와 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공학과, 레이저광정보공학과 등 5개 학과의 예비인증을 준비 중이며, 예비인증 후 인증과정 졸업생이 배출되면 중간평가 단계를 거쳐 공학교육인증으로 전환된다.

2013년 공학교육인증 평가는 평가단장과 각 전공별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2박 3일(2013. 04. 07 ~ 04. 09)에 걸쳐 해당 대학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 후 약 8개월간 대응평가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평가는 프로그램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교과영역, 학생, 교수진, 교육환경, 교육개선,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8개 영역과 27개 평가부문, 67개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한편,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품질보증제도인 공학교육인증은 공학교육인증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이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공학 실무 능력을 갖췄음을 보증한다. 2007년 우리나라가 워싱턴어코드 회원이 됨에 따라 인증 졸업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해외취업 시 현대대학 졸업생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청주대, 교직원 퇴임식 거행



지난 2월 28일, 우리대학은 본관 청석홀에서 교수 4명과 직원 3명의 퇴임식을 열고, 정년 및 명예퇴임을 하는 교직원들을 축하했다. 이남복(사회학과), 남기민(사회복지학과), 장영숙(음악교육과), 김두영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정년퇴임했고, 권재안(시설운영팀), 최광인(시설운영팀), 정중용(시설운영팀) 직원이 명예퇴직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산업디자인학과 김두영 교수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남기민 교수와 장영숙 교수에게는 육조근정훈장이, 이남복 교수에게는 근정포장이 각각 전수됐다.

총학생회, 천안함 4주기 맞아 유족에 성금 전달



우리대학 총학생회가 천안함 4주기를 맞아 추모활동을 벌였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4일 충북 지역의 천안함 희생자인故 안동엽 병장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학생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교내에 천안함 유족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벌여 모두 1,140,450원의 성금을 모았다. 성금 전달식에서 유지상 총학생회장(경영학과 4학

년)은 "故 안동엽 병장의 희생이 있어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도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항상 잊지 않고 자주 찾아 뵙겠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故 안동엽 병장의 부친인 안시영 씨는 "학생들의 소중한 성금이니만큼 주변의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쓰겠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이 이렇게 아픈 일인 줄은 겪어본 후에야 알게 됐다. 우리 아이를 잊지 않고 추모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 총학생회 80여 명의 학생들은 3월 25일 오전, 대전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참배하고 비석을 닦는 등 묘역청소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청주대, 교수 취업지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난 3월 24일, 우리대학은 본관 청석홀에서 '교수 취업지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오전 9시와 오후 2시 30분, 각각 2시간씩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우리대학 인재개발원 정진주 원장(건축학과 교수)의 '2013년 취업률 현황과 2014년 취업률 평가지표 주요 변화' 발표에 이어 인재교육연구소 이형국 소장의 '대학생 경력관리 및 취업지도 전략'에 관한 강의로 진행됐다. 정진주 원장은 "취업률이 정부의 대학 평가 핵심 지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의 노력은 기본"이라고 밝히고, "이번 워크숍이 교수들의 취업지도 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졸업생 취업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대 한국어교육센터-청주 명장사 협약 체결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센터장 정치섭)와 청주 명장사(주지 유정)가 지난 3월 24일 명장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체험 힐링캠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명장사에서 제공하는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국내 문화생활 적응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다도체험, 떡 만들기, 명상법 배우기, 한국전통놀이 체험, 속리산 법주사 견학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교류처 정치섭 처장은 "협약을 통해 청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문화체험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 및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학과, 신입생 입과식 개최



지난 4월 3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군사학과 신입생 입과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윤배 총장이 주관하였으며, 군사학과 신입생과 학부모, 재학생, 대학 및 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입과식은 국민 의례, 입교자 신고 및 선서, 축사,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사를 마친 후 군사학과 신입생과 가족, 친지 100여 명은 대전 현충원으로 이동해 천안

함 4주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2010년 육군본부로부터 개설을 인가 받아, 2011년부터 군사학과 신입생을 모집해 왔다.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군사학과 전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입생 유치와 동·하계 위탁훈련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보건의료대학-국민건강보험공단 협약 체결



우리대학 보건의료대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월 28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대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대학생들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기로 했다. 양 기관은 대학생들에게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취업정보 제공과 교수 연구에 관한 정보 교환, 건강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문 등의 협력이 이뤄진다. 보건의료대학 정규호 학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취업은 물론이고 금연, 흡연 예방, 비만관리 등의 건강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장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요원이 될 대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대-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인식개선 특강



우리대학은 지난 4월 10일, 교내 취업전용강의실인 종합강의동 502호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 사회공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4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취업가치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중소기업의 현황, 우수 중소기업 구별법, 우수 중소기업 취업 성공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점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현직에 있는 직원들과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형식을 통해 학생들이 갖고 있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중소기업체 취업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강연에 참석한 이재환(경제학과 4학년) 학생은 "중소기업이라 하면 급여수준도 낮고 근무조건과 업무환경이 열악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모르고 있었던 강소기업, 우수기업이 많으며 근무환경이 우수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대, 201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우리대학은 지난 4월 15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현재 2,941명의 입학정원을 2.89% 감축, 모두 85명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을 확정했다. 이에 한문교육과와 사회학과를 폐지하고, 한문교육과의 정원과 동일한 국어교육과를 신설하며, 13개 학과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치외교학과를 정치·안보·국제학과로, 도시계획학과를 도시계획부동산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우리대학은 매년 신입생 입학성적,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등 다각적인 평가 항목으로 시행되는 학과평가를 통해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각 학과는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이 중 최하위인 E그룹에 포함된 학과에 경고를 주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그룹에 2년 연속 포함되는 학과에는 폐과 예고를 통보하며, 3년 연속 포함될 경우 폐과 대상이 된다. 폐과 결정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는 동안은 학과를 존속시키며, 해당학과의 교원들에 대해서도 교양학부 과목 개설 등 최대한의 구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Faculty News

교수소식

김성태 교수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논문 발표



경제학과 김성태 교수가 지난 3월 18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를 통해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

은 2012년 발표된 제5차 재정패널자료 중 근로소득 가구 2,477가구에 2011년 소득세법과 2014년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한 뒤 추정 소득세액을 비교한 것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소득세 최고구간(38%)에 속하는 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교수

세종시 금남도시지역 발전방안 공청회 참석



옛 용포리 지역인 세종시 금남도시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학과 김영환 교수가 지난 3월 12일 금남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교수는 이번 용역의 3가지 테마인 ▲마을 경관 향상을 위한 구상으로 도로망 정비를 통한 접근성 향상, 마을 진입부 경관 향상, 가로경관 향상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커뮤니티 시설 조성, 장터광장 조성, 담장 허물기를 통한 커뮤니티 증진 ▲주민생활 최적화 사업으로 건설지역과의 연결성 최적화, 면사무소 이전 및 확장,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설명했다.

손희준 교수

한국정책홍보연구원 충북도지부 대표 선임



행정학과 손희준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정책홍보연구원 충북도지부 대표로 선임되었다. 지난 3월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한국정책홍

보연구원은 법률, 행정, 외교, 경제, 사회, 복지, 환경, 미디어 등 각계 전문가 2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정책 및 홍보전문가 네트워크로서, 효과적인 국가홍보정책의 연구, 수립, 자문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래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신춘음악회 참여



음악교육과 이래근 교수가 지난 3월 13일 제주시도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지휘 조지웅)의 2014 신춘음악회 '봄날 같은 사람들' 무대에 올랐다. 이래근 교수를 비롯해 우리 가곡작곡가협회인 '가곡동인' 멤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음악회는 우리 가곡과 제주를 소재로 한 가곡을 합창으로 편곡, 발표하여 화제를 모았다.

조선배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국내 호텔관광학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호텔경영학과 조선배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마르퀴즈 후즈 후'의 세계인물(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다. 조선배 교수는 그동안 관광 및 호텔 서비스 개선, 관광의 산업화 등과 관련한 논문 발표와 자문에 앞장서왔다.

조철주 교수

풀꿈환경재단 설립준비위 준비위원 위촉



도시계획학과 조철주 교수가 충북 지역 환경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게 될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3월 18

일, 창립총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창립준비에 들어간 (사)풀꿈환경재단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민·관·산·학의 상생적 협력체계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곽동철 교수

2014년 '책읽는 청주' 대표도서 선정



문헌정보학과 곽동철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책읽는 청주추진위원회가 청주시립도서관과 함께 2014년 '책읽는 청주' 대표도서 선정을 위한 5권의 후보도서를 최종 선정했다. 후보도서는 공지영 저 '즐거운 나의 집', 전진우 저 '동백', 이현수 저 '나홀', 성석제 저 '위풍당당', 김미수 저 '소설 직지' 등이다. 곽동철 교수는 청주 지역의 도서관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염정주 교수

충북과학기술포럼 부회장 선출



생명과학과 염정주 교수가 지난 2월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충북과학기술포럼의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포럼을 이끌어간다. 충북과학기술포럼은 과학정책, ICT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Alumni News

동문소식

경청호 동문

제27대 청주대학교 총동문회장 선출



경청호(경영학과, 76년 졸업) 동문이 청주대학교 제27대 총동문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경청호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정기총회

에서 경선을 통해 당선됐다.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을 거쳐 현재 그룹의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경청호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경청호 회장은 "앞으로 동문들이 화합과 친목을 다지면서 참여할 수 있는 동문회,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동문 화합과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

이원구 동문

남양유업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원구(법학과, 83년 졸업) 동문이 지난 3월 31일 남양유업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원구 신임 대표는 남양유업의 새로운 미래가치로 '착한 경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착한 사람, 정직한 제품, 열린 회사라는 세 가지 실천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원구 신임 대표는 1983년 남양유업에 입사해

이후 31년 동안 줄곧 정통 '남양맨'으로 근무해왔다. 2007년 총무담당상무로 임원직을 맡았고 2011년 경영지원본부장, 2013년 총괄수석본부장을 역임했다.

김종길 동문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노인지도자대학 학장 선출



김종길(행정학과, 68년 졸업) 동문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노인지도자대학 학장으로 선출됐다. 김종길 학장은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김광홍 회장으로부

터 임명장을 받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2007년부터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활동해온 김종길 학장은 지역의 자원봉사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병욱 동문

청주세무서장 취임



유병욱(경영대학원 석사과정, 01년 졸업) 동문이 지난 1월 2일 취임식을 갖고 청주세무서장에 취임했다. 유병욱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세수 확보와 신뢰 세정

확보, 공정 원칙에 입각한 세정 집행, 직원 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유병욱 신임 서장은 1984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3과장, 조사관리과장, 예산세무서장, 대전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한복환 동문

광주은행 상임감사 선임



한복환(경영학과, 78년 졸업) 동문이 지난 3월 20일 광주은행 제55기 주주총회에서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한복환 신임 상임감사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우리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계에 첫 발을 내딛은 뒤 금융감독원 선임검사,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금융감독원 총무국 실장, 신흥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지냈다.

공민현 동문

2014 희망대상 스포츠부문 대상 수상



K리그 프로축구팀 부천FC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공민현(체육교육과, 13년 졸업) 동문이 2014 '희망대상' 스포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공민현 선수는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원년 멤버로, 2013 정규 리그 28경기에 출전해 팀 최다인 7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수로서 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황주복·이영석 동문

2013 한국음악상 공로상 수상



황주복(음악교육과, 80년 졸업) 동문과 이영석(음악교육과, 93년 졸업) 동문이 한국음악협회가 주관하는 2013 한국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황주복 충북음악협회 고문은 세광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협회를 7년간 이끌며 2008년 충북도립교향악단 창단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영석 충북음악협회 부회장 겸 청주음악협회장 역시 라포르자 오페라단을 창단해 예술감독을 맡아 매년 연주회를 가지고 있다.

최대철 동문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 취임



최대철(법학과, 89년 졸업) 동문이 신임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으로 취임했다. 최대철 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농협

의 역할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철 지부장은 그동안 농협충북지역본부, 청주시청 출장소장, 청주물류센터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명사초청 특별강좌

2014년 3월~4월

3 March

나는 오늘도 꿈을 꾸다

3월 12일



최창환 장수돌침대 회장

장수돌침대 최창환 회장이 지난 3월 12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2014학년도 1학기 첫 번째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나는 오늘도 꿈을 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최창환 회장은 "남들이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은 굳건한 신념과 역발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많은 걱정이 된다.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뜻을 세우고 정진했으면 좋겠다"며, "근무와 복지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많다. 취업을 할 때에도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자신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중소기업에까지 시야를 넓혀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건설현장 중장비 기술자로 일하다 국내 최초로 온열 기능을 가진 돌침대를 개발했다. 1993년 장수산업을 설립, 1996년 케이블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2002년 장영실 과학문화상 특허부문 금상 수상, 2004년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2008년 세계가구연합회 부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40년 제복의 지향- 국가와 군, 그리고 리더십

3월 19일



한민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지난 3월 19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는 올해 두 번째 명사초청 특별강좌가 열렸다. 강사로 나선 이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으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40년 제복의 지향-국가와 군,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항일 의병장 청암 한봉수 선

생의 손자로,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31기)를 졸업하고 육군 제53보병사단 사단장, 국방부 국제협력관 및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제36대 합참의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1999년 보국훈장 삼일장, 2004년 보국훈장 천수장, 2011년 미국정부 공로훈장을 받았다.

응답하라, 기업가정신

3월 26일



이민화 한국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한국벤처기업협회 이민화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6일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이번 특강에서 이민화 명예회장은 "도전이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텍쥐베리의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대한 동경을 주라'는 말을 인용하며 "끝없는 미래에 대해 동경

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새로운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북 군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카이스트 초빙교수로 활동했고, 2009년부터 2년간 기업호민관실(중소기업 옴부즈만실) 호민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유라시안 네트워크 이사장, 한국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4 April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전망

4월 2일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 4월 2일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위해 우리대학을 찾았다.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홍상표 원장은

"현재 세상은 아이디어의 시대, 상상력의 시대, 창의성의 시대다. 콘텐츠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럴 때일수록 세계를 겨냥하여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개척해 우리나라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홍상표 원장은 한국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1982년 연합뉴스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1999년 YTN 정치부 차장 및 프라임뉴스 앵커, 2005년 YTN 보도국장, 경영기획실장 및 상무이사로 활동했다. 2010년에는 한국외대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2010년부터 2년간 이명박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창조 대한민국의 미래는 문화콘텐츠이다

4월 9일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가 지난 4월 9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창조대한민국의 미래는 문화콘텐츠이다'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날 박명성 대표는 "지금은

정보사회에서 꿈의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꿈의 사회에서는 대중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주역이자 리더"라고 강조하고, "요즘 대학생들은 꿈과 열정이 부족한 것 같다. 미래의 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만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명성 대표는 1982년 극단 동인극장에 입단하여 배우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무대감독, 연출가, 공연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하며 뮤지컬 기획 및 제작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1999년 신시컴퍼니 대표를 맡아 뮤지컬 <고스트>, <맘마미아>, <시카고> 등을 제작했다.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종류

대학발전기금_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발전기금_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대학발전기금_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 글로벌리더 육성 기금
-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대학발전기금_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 공연예술지원기금
- 연극/영화지원기금
-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 회화/만화 발전기금

기부 방법

기부 참여 안내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 금액 및 용도를 약정한다.

급여 이체

청주대 교직원인 경우 매월 급여에서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360-764)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



인재의 꿈을 읽다!

미래를 연다 세계로 간다

당신의 열정은 미래보다 커다랗기에
당신의 가능성은 세계보다 넓기에
당신의 내일과 청주의 오늘이 만나
가장 뜨거운 변화와 혁신을 시작합니다.
'신수도권 명문대학' 청주대학교에서
미래로, 세계로 마음껏
당신의 꿈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인재의 꿈을 읽다 - 청주대학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생중심대학

- 장학금 370여억 원 지급(2013년)
- 외국인 교수비율 전국 10위(2013 조선일보-QS 대학평가)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세계 29개국 150여 대학과 자매결연)
- 최신 아파트형 기숙사(2,300여 명) / 신입생 전원 수용 가능
-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공/진로/대학생활/취업까지 책임지는 책임지도교수제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무역전문기양성사업 선정(2012~2015)